

# 조선중기 솜털릭(帖裏) 구성에 대하여

- 순천 김씨묘 갈색명주솜누비털릭 중심으로 -

장 인 우

인천대학교 패션산업전공 조교수

## On the Construction of Cotton *Tyeollik* in Middle of Chosun Period

- Through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Tyeollik* Excavated from Lady *Kim's* Tomb-

In-Woo Cha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 Industry, University of Incheon

(2002. 10. 17 부고)

###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otton *Tyeollik* construction of the middle Chosun Period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tyeollik* which was excavated from lady *kim's* tomb(from sooncheon).

The form of excavated *Tyeollik* classified into two types by the location of waistline. The structure of excavated *tyeollik* classified into three types by the construction(one-layer, two-layer, cotton/quilt). The form type change according to the period. The change of the form type has the close relation structure type in the *tyeollik*. Cotton-*tyeollik* belongs to the form of the front time.

The construction of cotton *tyeollik* is similar with the one-layer *Tyeollik* Exception the construction of *git*(collar) and the size and direction of the fold. The surface pattern is composed of two-pieces but the liner is one-piece in the *Git*(collar). and In The size of fold surface is 0.2-0.3cm, and liner is 0.5-0.8cm. The direction of fold in the liner is the contrast with the surface.

Key Words : *tyeollik*(털릭), lady *Kim's* tomb(7from *sooncheon*)(순천김씨 묘), one-layer(홀겹), two-layer(두겹), cotton(솜), form-type(형태유형), structure-type(구성유형), fold(주름)

## I. 서 언

조선중기 철릭은 다른 복식과는 달리 너무나 많은 변화<sup>1)2)</sup>를 지냄으로써 복식사가들의 연구대상

이 되어왔다. 이러한 철릭의 명칭은 조선중기에 이미 고유어(털링·털릭)와 한자어명칭(帖裏·綴翼)이 이중구조로 공존하였으니<sup>3)</sup> 연문기록에서는 조선중기 이전부터 '털링·털릭'으로 불리었고 후기

이후에는 ‘철릭’으로 불리웠다. 이는 구개음화에 의한 변화이었다<sup>4)</sup>. 그러나 한자기록에서는 조선전기까지는 ‘첩리(帖裏/帖裡)’로 그 이후에는 ‘천익(綴翼/天翼/千翼)’으로 불리웠다. 이는 의복의 역할에 따른 변화<sup>5)</sup>로 추정되었다. 이는 실록에서도 한자어 ‘리(裏)’는 속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한다고 본다<sup>6)</sup>. (본 논문의 내용이 조선초·중기의 출토복식에 대한 연구로 당시의 고유어인 ‘털릭’으로 표기하였다.

철릭의 형태는 상의하상(上衣下裳)의 구성에 의하여 허리 연결선의 위치에 따라 상의가 하상보다 긴 장의단상(長衣短裳)유형과 상의가 하상보다 짧은 단의장상(短衣長裳)의 두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유형은 시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한다.

또한 철릭의 실물유물에서는 홑·두겹·숨/누비의 다양한 구성유형을 볼 수 있으나, 구성에 대한 연구는 홑철릭에 관한 것<sup>7)8)9)10)11)</sup>과 발굴보고서<sup>12)</sup>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솜철릭의 구성을 살펴봄으로서 철릭구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과거 의복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의복의 구성유형에 따라 봉제방법을 달리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13)</sup>. 이에 철릭의 경우도 구성유형에 따른 봉제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릭의 홑겹·두겹·숨의 구성유형과 허리 연결선 위치에 따른 형태유형과의 관계유무를 살피고, 아울러 과거 유물의 실물조사와 그 재현을 통하여 조선중기 철릭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과 자료는 철릭의 구성유형과 형태유형의 관계유무와 이러한 형태유형과 구성유형에 따른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과거 의복의 연대추정이 가능하며, 또 과거 실물로서 의복의 구성요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출토털릭의 1차자료인 보고서와 일부 실물조사를 통하여 살피고,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유물인 순천 김씨묘 갈색명주숨누비털릭을 재현함으로써 조선중기 솜털릭의 마름질과 봉제방법을 이해하고자 한다.

## II. 출토털릭의 형태유형에 따른 시대구분

### 1. 출토 털릭에 나타난 구성요소

출토보고서와 실물조사에 의한 과거 실물인 출토첩리의 구성요소에는 깃(領)·의(衣)와 상(裳)·소매(袖)·섶(裻)·고름(襟)·주름·무와 바대가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에는 각각 여러 종류가 있음을 볼 수 있다<sup>14)</sup>. 즉 출토첩리에 나타난 깃은 이중깃과 외깃이 있고, 고름은 겹고름이 1개의 긴고름과 짧은 고름의 1쌍고름과 2개의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의 2쌍고름이 있다. 소매는 곡선소매와 직선소매 그리고 두리소매가 있으며, 봉제에 있어서 의복에 고정된 고정형소매와 분리할 수 있는 분리형소매가 있다. 무는 겨드랑이에 정삼각형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주름은 개더양식과 플리츠양식 그리고 외주름과 맞주름이 있으며, 주름의 크기는 0.1(0.2)cm에서 2(3)cm나비까지 다양하다. 치마는 전 폭이 연결된 것과 양옆에 치마폭이 분리된 것 그리고 뒤가 겹쳐지게 구성된 것 등이 있다. 철릭의 구성유형은 홑겹과 두겹 그리고 솜과 누비로 다양하며, 재질은 모시·무명·명주·사·비단으로 면·마·견 등으로 구성되었다.

### 2. 출토털릭의 형태유형과 분포

출토털릭의 형태유형을 허리연결선에 따라 -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의 구성비율이 1:0.9에서 1:1.1로 이루어진 형태를 유형A로, 또 비율이 1:1.4에서 1:1.9로 이루어진 형태를 유형B로 - 분류하였다. 이러한 털릭의 형태유형을 출토지와 피장자의 생졸연대 그리고 출토빈도를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여기서 유형A는 출토지 홍계강·김흥조·정은·정응두·경주이씨·고령신씨·이석명·이용태·제주고씨·순천김씨·문화유씨의 출토첩리가, 유형B는 NN풍산홍씨·전주이씨(익정)·김위·문익신·장흥임씨·김덕원·안동김씨·김덕령의 출

지방 출토지	생존년도	유형	빈도	연도					
				1400	1500	1600	1700	1800	
경기도	*문양군(1431-1489)	A	5	←-----→					
	홍계강(1450년추정)			-----					
	변수(1447-1524)	A	3//	←-----→					
	정운(1481-1538)	A	7		←-----→				
	정응두(1502-1572)	A	23		←-----→	←-----→			
	이석명(1513-1583)	A			←-----→	←-----→			
	이언응 (중정-선조)	A	2			-----			
	고령신씨/참봉공(1519-1582)	A	3		←-----→				
	고령신씨(군수공)	A	10						
	성주이씨(1524-1582)	A	4		←-----→	←-----→			
	*동래정씨(?-1583)		2			-----			
	*동래정씨(1529-1604)		4		←-----→	←-----→			
	정휴복								
	조경(1541-1609)	A	3		←-----→	←-----→			
	*남양홍씨(1584-1654)						←-----→		
	*여홍민씨(1596-1656)						←-----→		
	문화유씨(1615-1685)	A	1			←-----→	←-----→		
	*양천허씨(1630-1660)						←-----→		
	최숙(1636-1698)	B	37			←-----→	←-----→		
	*홍우협(1655-1691)	B	27				←-----→		
	의원군(1661-1722)	B	1				←-----→	←-----→	
	*김덕원(1634-1704)	B	1			←-----→	←-----→	←-----→	
	*완산최씨(1650-1732)						←-----→	←-----→	
*이황(1651-1724)						←-----→	←-----→		
이익정(1699-1782)	B	1				←-----→			
안동김씨(1708-1968)	B	1					←-----→	-----	
순천김씨(1537-1594)	A	2		←-----→					
김위(임란전후)	B	3				*-----			
홍감보(1699-1763)	B	1					←-----→	←-----→	
홍의준(1761-1841)	B	2						←-----→	
경상도	김홍조(1461-1528)	A	12	←-----→					
	*문의신(1556-1645)	B				←-----→	←-----→		
	이용태(1556-1586)	A	7			←-----→			
전라도	*고운(1479-1530)	A	6	←-----→					
	*장홍임씨(1590년대)	B	1			-----			
	*김덕령장군(1567-1598)	B	2			←-----→			

참고 ←----- : 출생·사망연도  
 ----- : 출생·사망연도 추정  
 \* : 사망연도

\* 안동김씨분묘는 약6기 무덤의 출토유물이 하나로 합쳐져 그 정확한 연대 추정이 어려우나 인물가운데 그 연대가 가장 앞선 1708년에서 가장 최근인 1968년까지이다.

[그림 1] 출토복식의 피장자 생존연대표

토첩리가 속한다. 이러한 앞시기의 유형A가운데 홍계강·김홍조·고운·변수묘 출토 툼릭에서는 상의가 하상(下裳)보다 길게 구성된 예)도 볼 수 있으며 특히 변수묘 툼릭은 요선오자이다. 두 출토지 첩리 모두 유형A에 속하며 그 추정시대 역시 앞시

기에 해당되는 것([그림 1]참조)으로 툼릭의 허리선은 앞시기로 갈수록 허리선 아래로 상의가 길게 구성된 반면, 시대가 내려올수록 상의가 짧게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출토지별 생존연대와 툼릭의 출토 의복수를 관

런지어 살펴보면 유형A는 17세기 전반이전에 집중될 뿐 아니라 한 출토지에서 다량으로 출토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반면 유형B는 16세기 후반부터 출토되기 시작하여 뒤시기로 이어지며, 출토의복수 역시 1벌 혹은 2벌로 소수가 발굴되는 차이를 나타낸다. 여기서 출토의복수를 당시의 착용과 연관시켜 볼 때 출토의복수의 변화는 착용에서의 변화를 암시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순천 김씨묘 출토갈색명주숨누비첩리는 유형A에 속하나, 그 출토빈도는 유형B에 속한다. 이는 순천 김씨의 추정연대가 16·17세기(16세기중반전후)로 유형A와 유형B의 교차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두 유형의 성격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첩리의 형태에 의한 두 유형은 시기에 따른 변화이며, 출토의복수의 변화는 이러한 조선초·중기 첩리의 변화에 따른 결과 가운데 하나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Ⅲ. 구성유형에 의한 구성과 봉제

출토털릭은 깃·길·치마·주름·고름·소매·무·결바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졌으며, 구성유형은 홑겹·두겹·숨과 누비로 다양하다. 따라서 구성유형에 따른 구성요소의 성격(깃의 구성(이중깃/외깃)·주름의 종류와 크기·고름의 구성·소매구성 및 정삼각형무와 어깨 및 결바대 존재유무)을 살펴 털릭의 구성과 봉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표-1·2·3]은 각 출토복식의 보고서와 실물조사를 통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항목은 실제 유물성격에 관계없이 공란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를 통하여서도 그 대표성은 지닌다고 판단한다. \* 명칭은 보고서에 기록된 것을 사용하였다.)

#### 1. 홑털릭의 구성과 봉제

출토털릭 가운데 홑털릭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홑털릭은 유형A

와 유형B에서 모두 공존하며, 특히 뒤 시기의 유형B는 대부분 홑겹구성임을 볼 수 있다. 형태유형과 재질의 관계는 유형A가 사(紗/納)·단(緞)·모시/마포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저마와 마포 털릭이 비교적 많은 반면 유형B는 명주와 사 그리고 단의 견직물이다. 여기서 홑겹의 모시털릭은 앞시기 유형A에서만 나타난다. 즉 홑겹털릭이 전시기에서 공존하지만 그 재질에 있어서 마섬유중심에서 견섬유중심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는 털릭의 착용(의복의 역할)에서의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본다.

깃은 유형A에서 이중깃이 대부분이며 일부가 외깃인 반면 유형B는 모두 외깃이다. 주름은 유형A는 개더형 주름이고, 유형B는 대부분은 개더형외에 플리즈(이억정)(2) 양식도 있으며, 주름의 방향은 유형A와 유형B 모두 외주름이었으나, 고령 신씨(A)와 김덕령(B) 출토털릭에서 맞주름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앞의 고령 신씨 털릭은 솜털릭이며, 뒤 털릭(김덕령)은 홑털릭이다. 맞주름의 경우는 형태유형이나 구성유형에 의한 공통점을 볼 수 없다. 고름은 유형A는 2쌍고름이고, 유형B는 1쌍고름이다. 소매는 분리형과 고정형을 유형A와 유형B 모두에서 볼 수 있다. 이외 유형A에서는 치마의 뒷중심겹침구성(정용두)과 주름의 고정시침이 나타나며(이용태), 유형B에서는 치마의 옆트임(풍산홍씨/김덕령)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홑털릭은 유형A와 유형B 모두에서 공존하나 구성요소가운데 깃의 종류·주름의 크기·고름의 종류는 유형별 차이를 볼 수 있는 반면 소매의 고정형과 분리형 구성은 유형과 무관하였다. 아울러 주름의 종류와 치마에서 다양한 구성을 볼 수 있었다.

#### 2. 두겹 털릭의 구성과 봉제

출토털릭 가운데 2겹털릭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이에 의하면 2겹털릭은 대부분 유형A이며, 유형B는 1점(김위)에 불과하다. 유형A의 재질은 명주·사·단·마포·무명으로 다양하였으나 다수가 명주이다. 이 가운데 겹감이 무명과 마포인 경우는 안감도 동일한 재질이다. 깃은 유형A는 이중깃과

<표 1> 출토 홀털리의 구성

내용	명칭*	구성유형					결감			깃		주름		고름		소매분리	비고	
		유형	홀	겹	숨	명주	사	비단	모시	무명	이중깃	외깃	개더	플리츠	주름크기			2
홍계강	軟綠緞地蓮花紋紗	A	●			●				3	●	●		0.1-0.2	●		●	
	白細紵布		●					●		●		●		0.1-0.2	●		●	
김홍조	S21-1/철릭2	A	○			◇	稍			●				0.2	-	-	●	
	S21-2/철릭3	A	●			●	稍			●				0.2			-	
	S24+27/철릭6	A	◇					마포		●	●			0.2	◇	-	-	파손
	S25/철릭7	A	◇					마포		●	●			0.2	●		-	깃(숨)깃상침(파이핑효과)
정응두 23중11	綠青八寶雲紋緞	A	●					●		●	●			0.2	●		●	치마뒷중심에서 겹쳐지게 구성
	細色八寶雲紋緞	A	●					●		●	●			0.2	●		-	
	細色八寶雲紋緞	A	●					●		●	●			0.2	●		-	치마뒷중심에서 겹쳐지게 구성
	細色노방주	A	●					●		●	●			0.2	●		-	
고령선씨/ 彦從- 참봉공	숨칩리	A			누비	●					-	●		?	●		-	
	홀칩리	A	●						●			●		?	●		-	
이용태	소색저마홀철릭	A	●					저마			●	●		0.2	●		-	
	소색저마홀철릭	A	●					저마			●	●		-	-	-	-	주름고침시침/허리선1.5아래
	소색마포홀철릭	A	●					마포/ 저포		●		●		-	●		-	깃/수구/치마는 저포, 길소매 어깨바대는 마포
순천김씨	백색모시홀칩리	A	●					●		●	●		0.1	●		-		
김덕령 장군	白紵天翼	B	●					저			●	맞					●	맞주름
홍우협	연갈색명주홀칩리	B	●			●					●	●					●	●
	다갈색명주홀칩리	B	●			●					●	●					●	●
진주이씨		B	●				●					●						플리츠
풍산홍씨	天翼	B	●			●					●	●		1.6	●		-	치마의 옆트임
이익정	칩리	B	●				●				●	●		1.4			-	주름이 플리츠
김위 (임란전후)	소색명주홀칩리	B	●			●						●		2				
	초록색명주홀칩리	B	●			●						●		2?				
고운	소색모시홀칩리 I	A	●					●		●				0.1			-	
	소색모시홀칩리 II	A	●					●		●				0.1			-	
장흥임씨	白무명單天翼	B									●							●
김덕원	雲紋緞天翼	B	●				●				●	??						치마의 양옆트임
안동김씨*	철릭	B	●			●					●	●		0.9	-	-	●	운문단

<표 2> 출토 두겹 털리의 구성

내용	출토지	명칭*	구성유형				결감				안감		깃			주름		고름		소매	비고
			유형	홀	겹	숨	명주	사	비단	모시	무명	명주	면주	이중깃	외깃	개더	플리츠	주름크기	2		
홍계강		軟綠水波文緞		●								●	●			0.1-0.2	●	●	●	겨드랑이 삼각무	
		褐色八寶雲紋緞		●								●	●			0.1-0.2	●	●	●	겨드랑이 삼각무	
김홍조 대부분 털리 고름이 파손된 상태		S22/철릭4	A	◇					●	●	●	●			0.2(안0.5)*	-	-	-	주름정금선/고름1소실, 깃/숨, 교직, 깃/숨,		
		S23/철릭5	A	●		●			●	●	●	●			0.2(안0.5)	-	-	-	교직, 깃/숨,		
		S26/철릭8	A	●					면주	●	●	●	●		0.3(안0.7)	-	-	-	교직, 안감마포/면포		
		S28/철릭9	A	●				마포		마포	●	●	●		0.2	-	-	-	깃/결실/끝동 異色		
		S29/철릭10	A	●				마포		마포	●	●	●		0.2	-	-	-	깃/결실/끝동 異色		
		S30/철릭11	A	◇	◇				면주	면/숨	●	●	●		0.2(안0.5)	●	-	-	-	깃상침(파이명효과)	
	S31/철릭12	A	●				마포		마포	●	●	●		0.2	-	-	-	깃/결실/끝동 異色			
정은		겹철릭	A	●		●				-	●	●		0.2	-	-	-	-			
		겹철릭	A	●		●				-	●	●		0.2	-	-	-	-			
		겹철릭	A	●		●				-	●	●		0.2	-	-	-	-			
과천출토 경주이씨		褐色明紬	A	●		●				●		●	●	0.2/0.6-0.8	●	-	-	-	삼각형무, 누비/2, 안주름0.6-0.8		
고령신씨 /鎭陵-군 수공-보고서 설명불충분하여 분류 불가능		첩리	A	●		●								-	-	●	-	-	정삼각형무/누비4cm		
		첩리	A	●		●									-	●	-	-	정삼각형무/누비 0.4-0.5cm/고름		
		첩리	A	●		●									-	●	-	-	누비		
		첩리	A	●		●									-	-	-	-			
		첩리	A	●		●									-	-	-	-			
		첩리	A	●		●									-	-	-	-			
		첩리	A	●		●									-	-	-	-			
		첩리	A	●		●									-	-	-	-			
이용태		소색면포겹철릭	A	●					●	●		●	●		0.4	●	-	-	고름/겨드랑이 정삼각형무		
		갈변명주겹철릭	A	●		●				●		-	-	-	-	-	-	-	파손		
		갈변명주반수 겹철릭	A	●		●				●		●	●		0.3	●	●	-			
고운		갈색명주겹 철릭 I	A	●		●						●			0.3(-0)	●	-	-			
		갈색명주겹 철릭 II	A	●		●				●		●			0.3(0.7)	●	-	-			
	첩리2	A	●							●		●			3-4	●	-	-	정삼각형무구성		
	첩리3	A	●							●		●			3-4	●	-	-	정삼각형무구성		
김위		소색명주겹철릭	B	●		●				●		●									
		자색명주천릭	B	●		●				●		●			3?		●				

\*( )는 안감의 주름크기임

외깃이 공존하나 대부분은 이중깃이며, 유형B는 외깃이다. 주름은 유형A와 유형B 모두 개더형이며, 주름에 있어서 유형A는 겹주름은 0.1-0.2cm인 반면 안주름은 0.5-0.7cm로 겹감의 주름보다 크기 구성되었으며, 유형B는 겹주름의 크기는 3cm이다. 고름은 유형A는 2쌍고름인 반면 유형B는 소실되었으나 1쌍고름으로 추정된다. 분리형소매는 유형A에서도 나타난다(홍계강·고령신씨·이용태). 이외 유형A에서 겨드랑이의 정삼각형무의 구성을 다수 볼 수 있다(홍계강·경주이씨·고령신씨·이용태). 출토펠릭 가운데 김흥조의 팅릭(S23.철릭5)의 겹감은 면과 마의 교직이며, 팅릭(S26/철릭8)은 안감에 면과 마의 교직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sup>16)</sup>. 또한 대개의 팅릭은 각 구성요소에 관계없이 동일 색상과 재질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김흥조 철릭(S28/8, S28/9, S31/12)은 깃·겹섬·끝동부위에 다른 재질(마포)이 사용되었다<sup>17)</sup>.

이상과 같이 두겹팅릭은 대부분 유형A로 유형별 차이는 볼 수 없으나 깃은 이중깃과 외깃이 공존하나 이중깃이 지배적이다. 주름의 종류는 모두 개더형이며, 주름은 유형A는 0.2-0.3cm 내외이다. 소매는 분리형과 고정형이 공존하며, 고름은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2쌍고름이다. 다수의 팅릭에서 겨드랑이의 정삼각형무 구성(홍계강·군수공·이용태·경주이씨·조정)을 볼 수 있다.

### 3. 솜/누비팅릭의 구성과 봉제

출토펠릭 가운데 솜 혹은 누비팅릭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이에 의하면 솜팅릭은 김덕령 동침리(冬帖裏)를 제외하고는 모두 앞시기의 유형A에 속한다.

솜팅릭의 대부분이 명주이나 무명(1/27)의 경우도 있다. 순천 김씨묘 갈색명주솜누비칩리의 재질 역시 안팎 모두 명주이다. 솜팅릭의 깃은 일부 외깃(홍계강·정은·이석명/4점)이 있으나 대부분이 이중깃이다. 주름은 모두 개더형이나 맞주름(고령신씨)도 볼 수 있다. 주름의 크기는 겹감의 주름은 0.1-0.2cm인 반면 안감의 주름은 0.3-1cm이다. 고름은 이석명의 팅릭4를 제외하고는 모두 2쌍고름이

다. 1쌍고름의 경우는 고름의 크기가 넓으며 그 길이가 길게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sup>18)</sup>. 소매는 분리형소매와 고정형소매가 공존한다. 이외 다수의 솜팅릭 가운데 다수의 누비팅릭(정응두 상색명주철릭3점(누비간격2/2/9cm)·고령 신씨(참봉공)의 솜팅릭(05cm)·고령 신씨 군수공의 누비겹칩리(4/0.5)·순천 김씨묘 갈색명주솜누비칩리(9)가 있으며, 누비 간격은 0.5cm/2cm/4cm/9cm로 다양하다. 이는 시기에 따른 주름의 간격은 일정하나, 누비간격이 일정치 않은 것은 개인적 취향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외에 겨드랑이에 정삼각형무가 구성된 팅릭(이석명·순천 김씨) 또한 볼 수 있다. 반면 동출토지인 순천 김씨 백색모시철릭에서는 겨드랑이 정삼각형무의 구성을 볼 수 없다. 이는 형태가 유사할지라도 의복의 구성유형에 따라 구성에 있어서 차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팅릭의 허리선에 의한 형태유형에 의한 구성요소의 변화는 깃구성과 주름의 크기 그리고 고름의 구성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즉 유형A는 이중깃중심이나 외깃도 일부 공존한다. 반면 유형B는 모두 외깃 구성이다. 여기서 유형A는 0.1-0.2cm인 반면 유형B는 2-3cm이며, 유형A는 2쌍고름이고, 유형B는 1쌍고름의 구성을 볼 수 있었다. 홑겹·두겹·솜/누비의 구성유형에 의한 구성요소의 변화는 주름종류와 정삼각형무의 구성 그리고 치마에서 볼 수 있다. 즉 홑팅릭에서는 주름의 종류가 개더양식 외에 플리츠와 맞주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두겹과 솜팅릭에서는 모두 개더식의 주름이었으나 일부 맞주름도 있었다. 또 두겹팅릭과 솜팅릭에서는 겹감주름과 안감주름의 크기가 다르게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삼각형무의 구성은 두겹팅릭과 솜팅릭에서만 나타난다. 이러한 정삼각형무 구성은 팅릭이외에 장의나 뽕치막(창의/전박장군, 임계백, 양천 허씨 장기 정씨)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삼각형무의 구성은 특정 의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 구성유형에 따른 구성이라 판단된다.

<표 3> 출토 솜털릭의 구성

내용	출토지	명칭*	구성유형			결갑			안감		깃		주름		고름		비고			
			유형종류	홀	겹	솜	명주	사	비단	모시	무명	명주	면주	이중깃	외깃	개더		플리츠	주름크기	2
홍계강		紫色明袖			●	●						●	●			0.1-0.2	●	●	●	심지사용
김홍조		S20/철릭1	A		●				●		●		-	-	0.2(안1)	-	-			
정은		솜철릭	A		●	●						-	●	●	0.2	-	-			
		솜철릭	A		●	●						-	●	●	0.2	-	-			
		솜철릭	A		●	●						-	●	●	0.2	-	-			
		솜철릭	A		●	●						-	●		0.2	-	-	●		
정응두 23중11		鵝青明袖	A		●	●				●	●	●			0.2	●	-			
		柳線明袖	A		●	●				●	●	●			0.2	●	●			
		緋色明袖	A		●	●				●	●	●			0.2	●	-			
		緋色明袖	A		●	●				●	●	●			0.2	●	-			
		緋色明袖	A		●		누비			●	●	●			0.2/0.5-0.9	●	-			누비2.5
		緋色明袖	A		●		누비			●	●	●			0.2/0.5-0.9	●	-			누비/9와 함께 소매가 성글게 연결되었음
	緋色明袖	A		●		누비			●	●	●			0.2/0.5-0.9	●	-			누비/2	
고령신씨 /彦從-참 봉공		솜첩리	A			●				-	-	-	맞		0.7-0.8	-				맞주름
		솜첩리	A			●				-	-	-	●		?	●	-			
이석명		철릭1	A		●	●				●	●	●			0.2(안0.8)	●	-			안팎의주름크기다름
		철릭2	A		●	●				●	●	●			0.1-0.2/ 0.6-0.7	●	●			정삼각형무
		철릭3	A		●	●				●	●	●			0.1/2안0.3/4	●	-			겨드랑이 정삼각형무
		철릭4	A		●	●				●	●	●			0.2/안0.6	●	-			겨드랑이 정삼각형무
		철릭5	A		●	●				●	●	●			0.2/안0.4	●	-			겨드랑이 정삼각형무
		철릭6	A		○	●				●	●	●			0.2/안0.5	○	●			겨드랑이 정삼각형무 깃에만 솜사용
		철릭7	A		○	●				●		●			0.2/안1.2		●			겨드랑이 정삼각형무 겉고름이로 긴고름
		철릭8	A		●	●				●	●	●			0.1/안0.7-1	-	-	●		겨드랑이 정삼각형무
이용태		질은밤색명주 솜철릭	A		●	●			●	-	-	●		0.5	-	-				
제주고씨		철릭	A		○				-	-	-	-	-	-	-	-	-	-		파손측정불능
고운		녹색명주솜철릭	A		●	●				●	●			0.3(0.8)	●	-				고름일부 소실
김덕령		冬人翼	B		●				-	-	-	-	-	-	-	-	-			파손조사불능
순천김씨		갈색명주솜누 비첩리	A		●	●			●	●	●			0.2	●	-				솜누비/겨드랑이 정삼 각형무



#### IV. 갈색명주솜누비털릭의 성격과 재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털릭의 구성에 관한 연구는 훗털릭 중심이었다. 여기서 훗털릭의 구성은 상의와 하상의 구성 후 허리의 연결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두겹 혹은 솜(누비)털릭의 구성에서의 문제는 상의와 하상의 연결뿐 아니라 겹감과 안감의 연결순서를 들 수 있다. 즉 첫째는 안팎과 상하의 연결순서이며, 둘째는 상침과 누비의 순서이다. 의복의각선을 따라 상침한 후 누빌 것인지 혹은 누빈 후 외각선에 상침을 할 것인지를 순서이다. 과거 유물의 실물조사와 재현을 통하여 세부봉제와 제작순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순천김씨묘 출토털릭의 실물조사

갈색명주솜누비털릭은 형태에 있어서는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나 현재 전시 등을 통하여 외기와 빛에 노출됨에 따라 직물의 색상의 퇴색과 직물의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유물의 재현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현을 위한 실물조사 역시 그 의미가 크다할 수 있다. 순천김씨묘 갈색명주솜누비털릭의 실물조사에 의한 형태(크기와 재질)와 봉제는 다음과 같다.

재질은 명주이며, 겹감의 밀도는 60올×50올/2Inch이며, 직물의 나비는 37cm이고, 안감의 경우 길의 밀도는 78올×100올/2Inch이며, 치마와 깃의 밀도는 55올×50올/2Inch로 겹감과 유사하다. 대개 겹감이 안감보다 밀도가 조밀한 것이 사용되는 것과 달리 본 털릭의 경우는 겹감에 안감보다 밀도가 거친 것이 사용되었다. 또 본 털릭은 안감이 조각 조각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어 자투리의 천을 연결하여 제작한 것임을 볼 수 있으며, 직물의 나비는 약37cm이다.

깃은 칼깃이며, 2장으로 구성된 이중깃이다. 여기서 겹감의 깃은 7cm나비 2장으로 구성되었고 이 연결선을 따라 누벼져 있는[그림-2-㉓] 반면 안감

의 깃은 14cm나비 1장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중깃의 안감이 1장으로 구성된 예는 홍계강과 정용두(박성실, 1992)의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과거 이중깃은 재단에 있어서 겹감과 안감을 달리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중깃의 나비는 이용태묘 삼베훗털릭(1/7), 정용두(11/11), 홍계강(7/8), 이석명(2/2), 순천 김씨(2/2), 문화 유씨(1/1)의 털릭이 모두 동일한 간격이며, 김흥조의 털릭은 반목판깃이며 이중깃이다. 이중깃의 간격은 12벌의 출토털릭 중 3건은 간격이 동일하며(3건), 외측이 넓은 것(4건)과 내측이 넓은 것(5건)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깃나비의 1/2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깃의 크기는 나비 14cm이고, 길이는 131.5cm이며 고대는 20cm이다. 겹깃과 안깃의 길과의 연결봉제는 안팎이 모두 홉질로 구성되었다. 대개의 경우 겹깃은 홉질 혹은 박음질로 연결하고 안깃은 감침질로 구성되는 것과 차이를 볼 수 있다.

깃의 외각선 안쪽 0.5cm부위에 0.1cm크기 홉질이 0.2cm간격으로 상침처리 되었다[그림-2-㉔]. 이러한 봉제는 깃의 파이핑처리 효과(이은주, 1998)로 본 것과 두겹으로 구성된 의복과 솜으로 구성된 의복에서의 겹감과 안감을 고정시키기 위한 기능적 효과를 위한 것(장인우, 2001)으로 보고 있다.

동정은 명주이며, 크기는 나비4.2cm이며, 길이는 58.5cm이다. 봉제는 0.5cm크기의 3땀상침이 2cm간격으로 처리되었다[그림-2-㉕].

길은 직선길이며, 총길이는 134cm이고 길의 길이는 51.2cm, 길폭은 36cm이며, 길의 어깨는 굽로 구성되었으며, 길의 앞뒤 중심길이는 51cm인 반면 양 옆겨드랑이의 길이는 49cm로 뒷중심보다 2cm 짧게 구성되었다 [그림 2]. 여기서 치마길이가 앞과 옆에 따른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것은 허리선에서 치마와 길의 연결한 털릭의 경우 치마의 옆치짐을 길에서 처리한 결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를 저고리의 앞치짐으로 본 예(이은주, 1998)도 있어 앞으로의 조사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누비는 길과 소매 그리고 치마가 약 9cm나비로 누벼져 있으며, 누비 땀의 크기는 0.1cm땀이 0.5cm간격으로 누벼져 있다. 이러한 누비간격은 [그림

2-㉔)에서와 같이 바늘을 사선으로 넣어 그대로 위로 뜨면서 나타난 간격이라 판단된다. 즉 누비방식에서 바늘을 직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선으로 사용한 결과로 본다. 이는 누비솜의 두께가 얇은 누비와는 달리 누비솜의 두께에 따라 솜의 움직임이 유동적으로할 수 있도록 한 봉제법이라 생각한다.

본 순천 김씨 갈색명주솜누비털릭은 정응두묘출토 상색명주털릭과 가장 유사하나 정응두의 털릭는 것이 파손된 상태이다(박성실, 1992). 특히 치마의 경우는 치마 안팎의 주름을 따로 잡은 후 길과 연결하고 솜을 둔 상태에서 누벼졌다(그림 2). 이때 누비크기가 길과 동일하다. 누비의 간격은 순천 김씨묘 갈색명주솜털릭은 길과 소매 그리고 치마는 36.5cm폭을 9cm간격으로 누벼진 반면 치마의 안자락(32cm)과 겉자락(34cm)은 누비 크기가 8cm간격이며, 깃(14cm)은 7cm간격으로 누벼졌다. 이는 각 구성요소의 나비가 동일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그 누비크기를 7cm, 8cm와 9cm로 융통성 있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누비실은 겉감과 동일한 색이 사용되었다.

소매는 곡선소매이며, 화장은 109cm이며, 직물 3폭 반으로 구성되었다. 수구는 20cm이며, 수구 안쪽에 0.1cm안쪽 부위에 홉질로 상침처리 한 후 3cm 안 부위에 또 3땀상침이 처리되었다(도면 2-㉕).

무는 길과 소매의 겨드랑이에 정삼각형무가 구성되어 있으며, 무의 크기는 1.5cm이다. 출토털릭에 구성된 정삼각형무 크기는 (2×2-3.5×3.5)cm내외이다.

겉섶은 1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크기는 나비37cm×길이38cm이며, 올방향은 앞중심과 일치되었다. 안섶도 1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기는 나비6cm×길이7cm이다. 올방향은 섶선과 일치한다.

치마는 13폭으로 구성되었으며, 치마의 폭은 안섶의 안자락 폭은 32cm이고 겉자락의 폭은 34cm이고, 나머지 11폭은 모두 36-36.5cm이다. 치마길이는 61cm이고 안자락만 59.7cm로 약간 짧게 구성되었다(그림 2). 이는 직물의 폭이 37cm인 점을 감안할 때 솜기의 크기를 끝까지 활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안자락의 길이가 1cm정도 짧은 것은 겉자락 밖으로 안자락이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이라 생각한다.

겉주름의 크기는 0.2cm이며, 허리선에서 잡은 주름을 허리선 아래 1.5cm부위에서 다시 상침으로 고정시키고 있으며(그림 2-㉖), 36cm직물 한폭의 주름잡은 후 크기는 17-17.5cm이다. 안감의 주름 크기는 0.5cm이며 불규칙적이고, 허리선 아래 0.5-1cm 부위에서 0.7cm간격으로 솜과 함께 솜뜨기로 고정되었으며(그림 2-㉗), 이때 안감의 상침실은 안감과 동일한 색이 사용되었다(그림 2-㉘). 또한 안감의 주름은 3배주름 보다 속주름 크기를 크게 구성되었다. 주름의 방향은 겉감과 안감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이석명묘 출토 털릭<sup>19)</sup>에서도 동일한 구성을 확인 할 수 있어 두겹 혹은 솜구성털릭의 안팎주름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털릭치마의 구성순서는 안팎의 폭을 따로 연결한 후 겉감과 안감에 주름을 따로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겉고름은 2쌍이며 속고름1쌍이다. 겉고름은 2겹으로 구성되었으며, 솜기는 위(上)로 구성되었다. 겉고름 크기는 나비2.5cm이며 길이는 28(28.5)cm로 좌우의 크기가 동일하다. 고름은 겉섶선과 옆선에 1.5cm간격으로 구성되었다(그림 2-㉙). 속고름도 2겹이며, 고름의 나비는 2.5cm이며, 길이는 34.5cm이다(그림 2-㉚).

상침은 의복 외각선(깃·좌우앞중심·밑도련선·수구)을 따라 0.5cm안쪽 부위에 0.1cm땀이 0.2cm간격으로 홉질로 상침처리 되었다(그림 2-㉛)·㉜). 치마의 경우는 이러한 상침 안쪽 2cm부위에 다시 3땀상침이 처리되었다. 이 3땀 상침의 경우는 치마의 선단부위는 안쪽 2cm부위이며, 밑도련 안쪽 3.5cm부위, 수구는 3cm안쪽 부위에서 처리되었다(그림 2-㉝). 상침의 땀은 0.1cm이며 3땀상침의 크기는 1.5cm이며 간격은 4.5cm이며, 겉감에서 2땀이 안감에서는 3땀으로 처리되어 3땀상침을 안감쪽에서 처리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그림 2-㉞).

이상과 같이 솜누비 털릭의 실물조사와 재현을 통해서 솜털릭은 상의와 하상을 따로 구성하여 연결함으로써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치마의 경우 겉감의 주름, 겉감과 안감의 연결, 누비 그리고 안감의 주름의 순서로 그 구성을 알 수 있었다.

## 2. 갈색명주솜털릭의 재현

갈색명주솜털릭의 재현에 있어서 봉제방법은 앞의 실물조사에 준하였으며, 재현은 크게 겹감과 안감 구성하기, 안팎연결하기, 누비기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재현순서는 다음과 같다.

### i. 겹감과 안감 구성하기

① 겹감의 상의의 길·소매·깃·섶 연결하고, 안감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② 겹감의 치마폭을 연결하고 주름잡기, 여기서 겹주름은 플리츠이며 주름아래 1.5cm부위에 상침으로 고정시켰다[그림 2-⑧]. 이 때 1.5cm에서 주름의 간격을 일정히 하기 위해서 주름과 함께 상침을 2개의 바늘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안감의 경우는 치마폭은 겹감과 같이 연결하지만 주름은 잡지 않은 상태로 둔다[사진 1].

### ii. 안팎연결하기

안팎의 연결은 상의와 하상을 각 따로 연결한 후 허리에서 연결하였다.

① 상의의 겹감과 안감의 앞중심과 수구를 2겹으로 연결한 후 안감에 솜을 두고 뒤집는다. 뒤집은 후 길과 소매부분을 9cm간격으로 누빈다(이 때 앞뒤중심에서 좌우로 진행하며 길과 소매는 평면으로 둔 채로 누빈다). 이 때 길의 앞뒤허리와 소매의 뒷부위는 누비지 않은 채로 실을 남겨둔다. 이는 길의 경우는 길의 안팎사이로 치마를 연결하고, 소매의 뒤는 앞뒤배래의 연결 후 누비기 위해서이다.

② 소매의 배래는 과거 실물에서는 다른 부위와 동일하게 홉질(호아서)로 연결되었다. 배래는 소매의 뒷부분의 누비사이로 겹감의 시접을 끼워 넣고 안감에서 홉질로 처리하였다. 겨드랑이는 앞뒤를 길감끼리 안감끼리 연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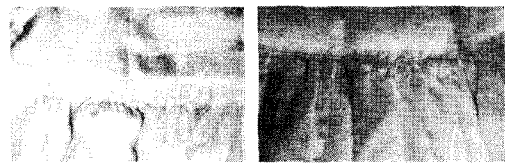
③ 치마의 안팎은 치마의 (겹자락과 안자락의) 양옆선단과 밑도련을 연결한 후 솜을 둔다. 이 때 솜이 움직이지 않도록 치마의 각 폭연결선에서 상침하고 각 8cm와 9cm간격으로 누빈다. 이 때 겹감은 주름이 잡힌 상태이며 안감은 주름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치마의 겹감주름을 잡기 전에

누비간격을 표시하면 누비기가 수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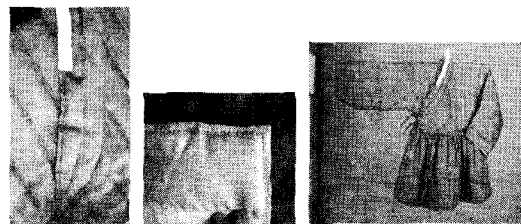
③ 상의의 겹감에 치마의 겹감을 연결한 후 겹감의 상의와 솜은 치마쪽으로 처리하고 치마의 안감은 솜과 함께 주름을 잡으면서 안감상의에 감침질로 연결시킨다[사진-2]. 이때 누비로 인해 안팎이 뒤틀리지 않도록 치마의 안감은 누비사이에서 주름으로 여유분을 처리시킨 봉제법을 볼 수 있다.

### iii. 상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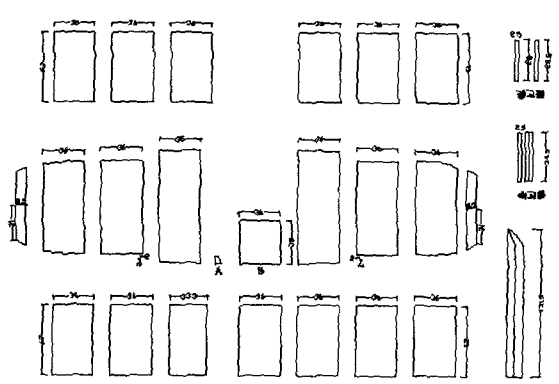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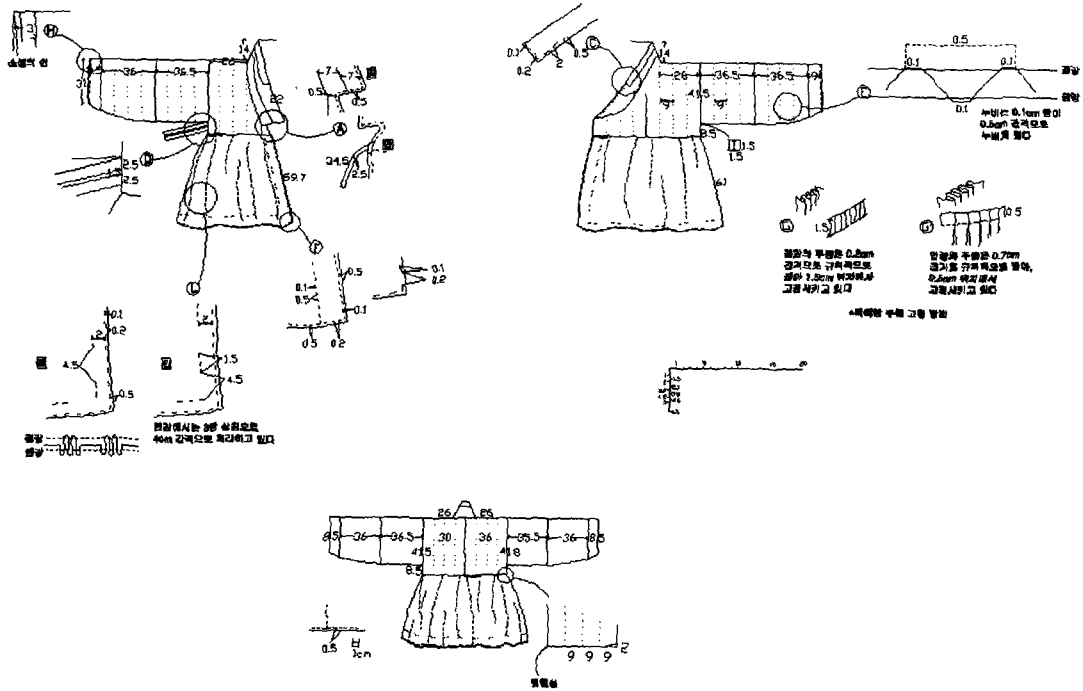
털릭의 외각선 깃과 앞중심 여밈과 밑도련 그리고 수구에 외각선에서 0.5cm안쪽 부위에서 0.1-0.2cm크기의 땀으로 0.1-0.2cm간격으로 홉질로 상침한다. 이때 바늘의 방향은 수직으로 처리한다. 이 상과 같이 솜털릭의 실물조사와 재현을 통하여 솜털릭의 구성은 홉질릭과는 달리 안팎의 주름크기를 달리하고 주름의 방향을 반대로 구성한 것이며, 특히 누비구성에서는 안감의 주름은 그 순서가 누비이후이며 누비사이에서 주름을 잡는 것이 특이하였다. 아울러 두꺼운 솜의 누비에서는 바늘을 사선으로[그림 2-⑨], 상침에서는 수 직[그림 2-⑩]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사진4) 이상과 같이 제작한 재현 털릭은 [사진 5]과 같다.



[사진 1] 겹감에서 주름 [사진 2] 안감에서 주름과 상의와의 연결



[사진-3] 겹감에서의 누비와 이중깃 [사진 4] 안감에 나타난 의복외각선의 상침 [사진-5] 재현한 털릭



[그림 2] 순천김씨묘 갈색명주솜누비털릭의 복원도

V. 결 언

과거 실물인 출토털릭에서 허리연결선의 위치에 따라 장의단상(長衣短裳)과 단의장상(短衣長裳)의 두 형태유형과 홑겹, 두겹, 솜/누비의 구성유형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형태유형과 구성유형 간에는 밀접한 상호관계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털

릭의 형태유형이 장의단상에서 단의장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홑겹·두겹·솜/누비의 다양한 구성유형이 홑겹중심으로 그 변화의 맥을 같이 하였다. 그 가운데 솜털릭은 단의장상의 유형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조선중기 이전에 착용되었던 의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6세기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두 유형이 공존하나 17세기중반이후는 단의장상 유형으로 정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출토의복수와 재질에서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즉 비교적 다수로 출토되던 의복수는 소수로, 재질은 견섬유·면섬유·마섬유의 다양한 섬유에서 견섬유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출토의복수의 감소와 재질의 고급화는 일상복에서 의례복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여기서 성종시대(1470-1494) 『成宗實錄』 自今士族衣服…帖裏毋過十三幅…庶人衣服…帖裏毋過十二幅… 앞시기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신분에 따른 털릭의 치마폭수의 차등은 앞시기에서 일상복으로 착용되었던 털릭이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착용됨에 크기에 제한을 두었던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털릭은 형태유형에 따라 구성요소 가운데 옷깃·고름·주름의 크기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즉 옷깃은 앞시기 장의단상의 유형에서는 외깃이 공존하나 이중깃중심이며 2쌍고름과 개더형 주름과 주름의 크기가 0.1-0.3cm반면 단의장상유형에서는 모두 외깃이며, 1쌍고름과 개더형 주름 외에 플리츠형 주름도 볼 수 있으며, 주름의 크기는 3cm이상이었다. 이외 겨드랑이 정삼각형무의 구성은 두 겹과 숨구성의 의복일부에서만 나타나며, 고정형소매와 분리형소매는 형태유형이나 구성유형과 무관하게 전시기에서 볼 수 있었다.

순천 김씨묘 갈색무명솜누비털릭은 이중깃·고정형소매·개더형 주름(2cm), 2쌍고름과 겨드랑이에 정삼각형무가 구성된 것으로 단의하상의 솜털릭구성과 공통점을 지닌다. 그 재현을 통하여 조선중기 솜누비털릭의 봉제구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솜털릭의 구성은 홑털릭구성과 유사하나 깃과 치마주름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의복외각선(깃·앞중심여밈·수구·밑도련)의 상침이다.

솜털릭은 장의단상에서만 나타나는 앞시기의 유형으로 깃은 이중깃구성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중깃은 겹감은 2장인 반면 안감은 1장으로 합리적으로 마감되어있었다. 치마의 경우는 주름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즉 겹감과 안감의 주름크기는 겹감은 0.2-0.4cm인 안감은 0.5-0.8cm이며, 주름의 방향은 반대로 구성되었다. 이외 겨드랑이에

정삼각형무의 구성과 의복의 외각선부위(깃·앞중심여밈·수구·밑단)에 상침처리를 볼 수 있었다. 즉 0.5cm안쪽에 홑질상침과 2cm안쪽에 3뿔상침이 처리되었다.

이상과 같이 상의하상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털릭에 있어서 허리선에 의한 형태유형은 시기에 따른 변화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구성유형과 구성요소 및 봉제구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솜털릭구성에서 치마안팎의 주름크기와 방향을 달리하고, 외각선 상침과 누비에서 바늘의 방향을 직각과 사선으로 달리 처리함으로써 동일한 구성에서도 그 기능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합리적인 봉제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金贊珠(1980). 철릭에 관한 服飾史의 研究, 서울大學 敎 大學院 衣類學科 碩士學位論文.  
趙今衍 (1980). 帖裏에 關한 考察,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金正子 (1984). 帖裏考, 服飾, (8), pp.57-68.
- 3) 이은주 (2001). 17세기 전기 현풍곽씨 집안의 의생활에 대한 소고, 복식, 51(8), pp.25-41.  
장인우 (2002). 조선중기 의생활 어휘에 관하여, 복식, 52(4), pp.1-13.
- 4) 이은주 (1988). 철릭의 명칭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3), pp.363-371.  
\_\_\_\_\_ (1989). 철릭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3(4), pp.319-329.
- 5) 장인우 (1997). 조선시대 첩리의 명칭과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pp.389-399.
- 6) 순조실록, 034/34/04/29,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2집, 1997, 서울시스템 「…철릭에 대해서 명칭 ‘첩리(帖裏)’는 과거 모포(帽袍)속에 입었기 때문에 불리었던 명칭…」이라 한 기록을 볼 수 있다.
- 7) 高福男 (1980). 縫製, 韓國民俗大觀Ⅱ, 日常生活 衣食住,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사, pp.286-326.
- 8) 朴宣映 (2001). 傳統韓服構成學, 서울: 修學社, pp.162-170.
- 9) 이은주 (1999). 16세기전기철릭의 구성법 일례, 복식문화연구, 7(2), pp.242-256.

- 10) 최은수 (2000), 요선철릭에 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 창간호, 국립민속박물관, pp.69-95.
- 11) 서지혜·안명숙 (2001), 조선 초·중기 홀철릭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4(4), pp.23-34.
- 12) 주 14 [그림 1] 참조
- 13) 장인우 (2001), 출토복식을 통해본 17세기 봉제구성, *복식*, 57(1), pp.33-48.  
趙豐 (2001), 遼代絲織袍服的圖案與裁剪, *한국복식 19*,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pp.49-81.
- 14) 金東旭 (1983), 壬亂前後期の出土服飾, 壬亂前後出土服飾 및 喪禮, 忠北大學校 博物館 調查報告 第8册. 高富子·朴聖實 (1992), 서울 河溪洞 出土 文化柳氏 (1615-1685년) 遺物 小考, *韓國服飾* (10), 檀國大學校 附屬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pp.26-136.  
朴聖實 (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世宗大學校 大學院 家政學科 博士學位論文.  
柳喜卿·金美子·姜淳弟 (1989), 斂襲衣, 安東金氏墳墓發掘調查報告書, 溫陽民俗博物館, pp.169-320  
高富子 (1995), 忠北 忠州市 牧溪洞 出土 豊山洪氏 遺物小考, *韓國服飾* (13), 檀國大學校 附屬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pp.51-77.  
고부자 (1997), 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 연구, *韓國服飾* (15), 檀國大學校 附屬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pp.65-120.  
박성실 (1998), 파주 금릉리 출토 경주정씨 유물소고, *韓國服飾* (16), 檀國大學校 附屬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pp.31-89.  
이은주 (1998), 金欽祖(1461-1528) 분묘의 출토복식을 통해 본 조선전기의 斂襲衣에 관한 고찰,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查 報告書, 榮州市 pp.209-228  
고부자 (1999), 일영 출토 고령신씨 유물소고, *韓國服飾* (17), 檀國大學校 附屬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pp.41-122.  
金明淑 (1999), 洪禹協 遺衣를 통해 본 朝鮮時代 17世紀 服飾과 織物, 朝鮮時代服飾研究, 忠北大學校 博物館, 調查報告, 61册, pp. 53-124.  
이은주 (2000),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출토 복식 고찰,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 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대학교 발굴관, *안동대학교 박물관 총서 14*, pp.169-348.  
이순원·유효선·조우현 (2000), 이석명 묘 출토복식 고찰, 이석명(李碩明)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 (9), pp. 25-124.  
안명숙 (2000), 출토복식의 종류 및 특징, 霞川 高雲 출토유물, 光州民俗博物館, pp.35-118.  
고부자 (2001),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익정(1699-1782)유물연구, *韓國服飾* (19), 檀國大學校 附屬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pp.83-146.  
박승원 (2001), 조경(趙敬)묘 출토복식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15) 박성실, 앞글(1992), 토첩리 가운데 홀으로 구성된 첩리는 모두 상(裳)이 4-5cm 짧게 구성되었다, p.324.  
이은주, 앞글(1998), 출토철릭(12) 모두 상의(上衣)가 하상(下裳)보다 길게 구성되었다, p.273
- 16) 이은주, 앞글, 1998.
- 17) 이은주, 앞글(1998), pp.289-291.
- 18) 이순원 외 (2000)
- 19) 이순원 외, 앞글(2000), p.49.